

목포권

목포시 기업유치 의지 있다

목포시가 최근 입주예정이었다던 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한 데 대해 목포 시민들이 소극적인 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향후 기업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시가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일부 주민 "환경오염" 반대하자 소극적 행정

연매출 2천억원대 한국알루미늄 유치 무산

리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 관련업체의 입주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결과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경우 향후 기업유치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며 시가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입주를 계기로 원도심 활성화에 나섰다 목포시는 연간 2천억원대의 매출 효과와 2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또 썼다.

상공인 김모씨는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시가

원산동·연산동·북항 등 원도심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서 "반드시 한국알루미늄을 유치해야 했었다"고 개탄했다.

목포시장의 관계자는 "영암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조금 제공에 조세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시의 이런 조처는 상대의 실수"라며 "기업이 없으면 재정자립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법 해상 횡단 와이어 철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최근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일원에 무단으로 설치된 300여m 길이의 해상횡단 와이어(본보 1월 22일자 보도)를 철거했다.

목포 자유시장 '관광명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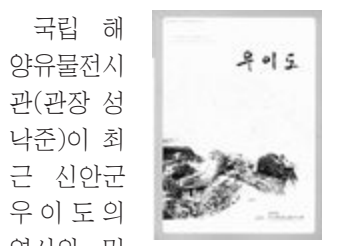
정부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목포 자유시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2009년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 시장'으로 최근 선정됐다.

2천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자유시장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고유 전통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축제·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우이도 역사·전통 한눈에

민속보고서 '우이도' 발간



국립 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이 최근 신안군 우이도의 역사와 민속, 전통 한눈에 다양한 해양 문화유산을 기록한 '우이도'를 펴냈다.



진도 소앵무 마을-광주도시철도사 1사1촌 결연

진도군 지산면 앵무리 소앵무 마을과 광주도시철도공사 1사1촌 자매 결연을 하고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결연을 통해 녹색농촌마을 체험,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지임대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등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성장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무안 세발낙지 맛보러 오세요"

포획량 늘고 가격 하락...미시가 '유혹'

무안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갯벌 세발낙지가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 외래 관광객과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무안갯벌낙지는 올 봄 꽃샘 추위와 번덕스런 날씨로 인해 생산량이 적었으나 최근 들어 평년수준을 되찾으면서 포획량이 급증하고 있다.

무안낙지의 특징은 한여름과 겨울철에는 적게 잡히고, 봄·가을에는 가래와 주낙질이 어획량이 많아져 지산 어업인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을 호가하던 가격도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7만~1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기상여건이 좋아지면 어획량이 늘어나 거래가격 또한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무안 세발낙지 맛을 보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 인근 무안갯벌 낙지직판장이나 주요 항·포구, 무안을 갯벌 낙지거리 등에서 가능하며 원거리에서는 택배 주문을 통해 살아있는 낙지 맛을 즐길 수 있다.

Table of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in the Mokpo Daily (光州日報) newspaper.

Large advertisement for 김영출신 (Kim Young-chul) featuring text like '합격생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and '대학면접 "역시, 김영'.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Kobum Law Auction) featuring text like '광주, 전남지역 경매' and '0621364-8700'.